KFF 뉴스

발 행 처 | 한국자유총연맹(서울 중구 장충단로 72)
발행·편집인 | 김경재

제173호 〈월간·등록번호 서울 아 01215〉 www.koreaff.or.kr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 Tel. 070-7122-8046/8042

제14회 전국고교생토론대회

울산 현대청운고 대상(국회의장상) 차지

연맹은 8월 9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법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후원으로 '제14회 전국고교생토론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각 시·도 예선대회를 거쳐 선발된 지역대표 16팀은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논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경재 총재는 대회사를 통해 "오늘의 토론대회가 청소년들이 미래 주역으로서 이념 통합, 학문 통섭의 시대에 걸맞은 창조성을 기르고, 소통의 자세를 배우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 결과 대상인 국회의장상은 울산 현대청운고 박서지, 심아윤 팀이 차지했다.

이 외 수상팀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상(금상): 경북 김천고 김재정, 지승용 ▲법제처장상(은상): 강원 춘천고 황인우, 이영범 ▲대한민국헌정회장상(은상): 인천 송도고 이정우, 김민석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상(동상): 서울 하나고 윤선혜, 윤희민 / 충북 한국교원대부설고 황세정, 최재혁 / 충남 연무고 조홍제, 이경빈 / 경남외고 감우찬, 조수빈 ▲연맹 총재상(장려상): 부산 지산고 민경원, 이상민 / 대구 신명고 임하경, 오혜원 / 인천 송도고 양현규, 정준식 / 울산 현대청운고 이재윤, 최준호 / 세종국제고 이의정, 정유빈 / 경기 동두천외고 김민현, 유호준 / 충북 청주신흥고 김원진, 나누리 / 제주 서귀포고 윤호영, 박승태 ▲베스트스피커상: 울산 현대청운고 심아윤 ▲자유지도교사상: 울산 현대청운고 박지성 교사

◇8월 9일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열린 전국고교생토론대회 폐회식에서 함께 한 참가자들.

◇김경재 총재와 DMZ 국토대장정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라사랑 평화나눔 DMZ 국토대장정'

250km 도보 행진, 호국·안보의식 고양

연맹은 8월 9~15일 6박 7일간 대학생 100여 명이 참가해 강원도 고성에서 경기도 파주 임진각까지 약 250㎞를 도보로 횡단하는 '제8회 나라사랑 평화나눔 DMZ 국토대장정'(이하 DMZ 국토대장정)을 실시했다.

전국에서 선발된 대학생 및 운영진 110명은 9일 서울 중구 자유센터에서 출정식을 가진 후 강원도 고성에서 DMZ 국토대장정을 시작, 인제-양구-화천-철원-연천을 거쳐 15일 파주 임진각에서 완주식을 가졌다.

김경재 총재와 서순철 세종시지부 회장 등 DMZ 국토대장정 참가단 등 330여 명은 이날 완주식에서 '북한 ICBM 도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기도 했다.

김경재 총재는 완주식 격려사에서 "조국을 수호하고자 청춘을 바친 선열들의 애국심과 패기를 이어받은 여러분이 있기에 저출산과 복지 등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발판삼아 한반도 자유 통일의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연맹의 DMZ 국토대장정은 GOP 철책선과 민통선 진입 등 호국·안보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으며 특히 이번 DMZ 국토대장정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과 청년실업문제 해소, 저출산 극복 등 국가적 과제 해결 기여를 다짐하는 깃발을 부착하고 진행했다.

〈12면(화보)에 계속〉

성 명 서

'레드-라인' 넘은 북한 ICBM 도발, 민-관-군 합심해 준 전시태세 갖춰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7월 28일(한국시간) 북한이 정전협정 64주년을 기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민-관-군이 일치단결해 준 전시상황의 총체적 대비태세를 갖춰줄 것을 호소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28일 밤 기습적으로 행해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2017년 들어 통산 13번째이며 미국 국무장관이 공식 확인해준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상황은 이미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한다.

1. 우리는 노타이 차림으로 경제인들과의 여유 만만한 맥주건배를 하다가도, 김정은의 ICBM 도발 직후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잔여 사드 발사대 배치,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지지한다. 동시에 누가 대통령이 되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전쟁 일보직전까지 북한에 대해 평화와 대화를 호소해야 할 '정치적 숙명'을 지닌다는 것도 백번 이해한다.

1. 그러나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대화의 제의는 비굴할 뿐만 아니라 전략적이지도 못하다. 특히 사드와 같은 '사활적 안보사안'을 두고 환경평가 운운의 '한가한' 논쟁을 방치한다면 김정은이 남한을 '오합지졸(烏合之卒)'로 오판하게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시키며 이 논쟁의 관련자인 성주군민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환경론자들의 '원론적' 논쟁을 제압하고, 나아가 중국방문 때 시진핑의 '위압적' 논쟁을 통쾌하게 설파하여 대한민국의 위상과 안보와 한미동맹을 지키는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은 더 이상 성주군민, 지지세력, 중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민 전체의 눈치를 보고 역사의 순리에 따르기 바란다.

1. 우리는 21세기의 역사가 인간의 자유와 창의와 복지를 이루는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고 있는데, '광적인 핵무기 편집증'에 빠져 김정은이 핵무기 하나로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믿는 '치기어린 망상'을 버리지 않는다면 역사와 국제사회의 준엄한 응징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재차 경고한다. 김정은의 핵은 우리 한민족의 수치이며 인간에 대한 수치다.

1. 우리는 1953년 휴전협상 대표였던 C. 터너 조이 제독이 "북한은 상대가 유약해보이면 도발한다"고 충고한 것에 유념하여 현 시점을 기점으로 민-관-군 모두 비상한 각오로 강력한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총체적 국가위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시점임을 선언한다.

2017년 7월 29일

한국자유총연맹 KOREA FREEDOM FEDERATION 350만 회원 일동